

# 여성운동...? 여학생회만 하는 것 아닌가요?

- 여학생회, 왜 필요한가

## 0. 들어가며

대학에 와서 접했던 것들 중에 가장 신기하면서도 제게 영향을 줬던 존재는, 바로 「운동권」과 「여학생회」였습니다. "절대 데모는 하지 않을거야" 하고 굳게 다짐했던 새내기인 나를 「운동권」 선배들은 아주 쉽게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운동은 한 번 해보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야"라고 굳게 다짐했던 나를 바꿔놓았던 것은 「여학생회」사람들이었죠. 여기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생각해보며 글을 쓰려고 합니다.

"여학생회가 내 조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네요... 학생회에 있을 때도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학생회에 있을 때는 학우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학생회로 오니까 이제는 그보다 먼저 학생회 일꾼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었죠.

현재의 모습이 어떻고, 무엇을 바꿔나가야 하는지 조금 보이는 이야기 같습니다.

## 1. 여학생회의 시작

80년대 초중반까지는 정권의 탄압 때문에 학생운동은 비공개 사회과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과학회는 여학생들에게는 철저한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이는 대학 내에서 여학생의 수가 적었던 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지극히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학생운동사회에서도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학생에 대해 '정권의 칼바람에' 엄혹한 실현을 감당하지도 못한 것이다'라고 재단하면서, 무엇보다도 '남녀가 함께 있으면 학회분위기를 망친다'면서 여학생들을 배제시키고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사회과학회를 꾸려왔습니다.

80년대 중반즈음부터는 여학생들에게 학회도 개방하고 학생운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으나, 학생운동 내에서 가부장적인 사고들은 극복되지 못하였습니다. 학생운동에서 배제되었던 여학우들이 주도하여 만든 학회에 대해서 많은 일꾼들이 '주제넘는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던 것은 가부장적인 인식이 아직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0년대 중후반부터 각 대학에서 학생운동에서 일정 배제되었던 여학우들이 총여학생회를 건설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투쟁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운동 내에서 끈질기게 버티어왔던 목소리는, '총여학생회 건설은 본연주의적 행태이다'는 식의 트집잡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여대협, 『한중권 일꾼들에게서 남성중심적인 언어를 없애기 위하여』 중 반체)

자주경희에서는 "에맥(여성문제 동아리)"이라는 비합씨클이 이 시기 여학생운동을 주도하며 총여학생회 건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맥이 중심이 되어서 전개되었던 총여학생회 건설 논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학생회가 여학우의 특별한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지 못하는 점

- 사회적으로 여성운동이 확장되던 영향
- 에맥의 강화 ->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중앙기구 필요

87년 에맥에서 활동하던 활동가가 총여학생회장이 되면서 우리학교 총여학생회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총여가 건설되면서 이전의 씨클이 담당하던 역할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씨클은 자동해체되었고 총여학생회 대중간부로 활동했습니다.

## 2. 여학생회가 하는 일 / 목표

### ▶ 대학 내 여성주의의 통로

흔히들 대학은 진보적이고 다양한 삶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대학은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접할 수 있고 대학생이라는 지위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됩니다. 새로운 것에 민감한 대학생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화제나 이슈가 되는 것이 가장 활발히 토론되는 곳 또한 대학입니다.

대학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치열한 무한 경쟁이나 많은 착취와 억압에 일정 정도의 보호막이 쳐져 있습니다. 일단 대학 밖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억압이나 착취는 찾아볼 수 없고 그와 동시에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대학 내에도 성폭력과 차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간담회, 교양 등의 자리에서 자신이 겪은 성차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했을 때, 고개를 갇우거리는(나는 겪은 적이 없다는) 여학우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성모순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받아 들여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학 밖 사회만큼 모순이 첨예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실제 몸으로 겪는 성차별은, 대학 내에서 겪는 것보다 가혹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 앞에 여학생들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남학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부장 권력에 길들여져 이제까지와 변함없이 모순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 여를 구분하여 재단한다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보편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사회적으로 남성의 권력이 형성되어온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대학은 사회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서 또다른 경쟁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특성은 여성문제와 교묘하게 접목되어서 모든 대학생에게 그러하지만 여대생에게는 특히 더 경쟁을 위한 삶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여학생이 진정한 삶의 주체로 나서는 것을 방해하고, '나만 잘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대생들이 취업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러한 모습은 잘 드러납니다.

이처럼 대학은 능력중심의 경쟁사회와 대학 특유의 보호막을 발동하여 진정한 삶의 주체로 발전하는데 많은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대학 내 여성운동은 대학의 보호막으로부터 학우들을 끄집어내어, 앞으로의 삶에서 성모순을 극복하고 없앨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인식되는 대학에서는 반드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매매, 동성애, 군사주의, 호주제, 성폭력 등의 구체적인 사안들이 대학 내에서 토론될 수 있습니다.

### ▶ 성모순으로 소외된 이들 또는 성모순을 없애려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자

대학이 첨예한 성모순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아니지만, 성모순으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학 내 성폭력이죠. 대학 내에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수-학생, 선배-후배 등 권력구조는 존재합니다. 성폭력은 권력에 기반하여 일어나는 만큼, 대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폭력 뿐만 아니라, **성에 기반한 차이**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학생회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의대에서는 전공을 선택할 때, 여학우에게는 선택이 굉장히 제한(ex.외과는 남학우, 산부인과, 소아과 등은 여학우)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대에서는, 법률이 여성의 입장을 배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우들이, 취업을 하는 여성에게 세상이 얼마나 비협조적인가를 실제 몸으로 많이 느낄 수도 있겠죠... 수업 시간에 교수가 던진 "여자는 시집만 갈가면 되지..." 하는 말에 상처받는 학우도 있을 것입니다. 담배를 펴 곳이 없어 화장실을 찾아들었다가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하지만 길거리에서 담배 피다가 들었던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떠올라 우울한 날을 보낸 학우도 있을 거구요.....

그리고 간호과학부에서는 소수의 남학우들이 옷갈아입을 곳이 없어도 어찌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고 하네요. 여학생회가 남학우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남성도 나타나는 현실에 따라 성적소수자가 될 수도 있다는)이기도 하구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남성의 권력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구조로 인해 남성도 역시 고통받는 부분이 있고, 잘못된 권력구조를 바로 잡으려면 여성만의 투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울고 싶을 때 맘껏 울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의 성역할을 사회적으로 구성하여 강제해오면서, 남성도 "남자다워야 한다.", "강해야 한다"는 성역할을 강제당했기 때문에 많이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학우들이 이러한 성역할로 고민한다면, 여학생회는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요된 성역할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 여학생회의 꿈★이니깐요..^^

## ▶ 우리의 일상에서 문제는 시작된다

바로 위 이야기를 읽고 어느 정도 감 잡으셨겠지만^^, 여학생회가 지적하는 이야기는 일상 속에 존재합니다. 일상 속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 모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일상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한 번 보이기 시작한다면 수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사인 연애를 한 번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연애를 할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나요? 돈 많고, 잘생기고, 남자다우면서도, 세심하게 여자를 기쁘게 할 줄 아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남자... 예쁘고, 지적이고, 청순하며 순수하고, 자상하고, 하지만 놀 때는 놀 줄 아는 여자...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역할은, 남성과 여성 서로가 불가능한 이상형의 잣대로 평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힘들어하면서도 **남자다우려고, 여자다우려고** 자신의 성향과 상관없이 노력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날 위한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아끼는 존재로 여긴다면, 상대방이 스스로 지향하는 모습을 아껴줘야 하는 것이겠죠.

대학에서 빠지지 않고 일어나는 일상은 바로 술자리입니다. 우리의 술자리 문화는 어떤가요? 잘 못 마시는 사람에게 원샷 강요하기, 누구 목소리가 더 큰가 내기하기, 술김에 물건 부수고 욕하기,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성폭력, 그리고 음담패설과 야한 게임... 평소애 못다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나누어주는 자리로 만들어야 **모두가 즐거운** 술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대학에 들어오면 이전보다 성경험이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

지식, 성인식은 그만큼 자유롭고 이성적인가 고민됩니다. 우리가 얻었던 성지식은 포르노, 소설, 잡지, 인터넷 야동 등등에서 얻은 위험하고 가학적인 행위 내지는 여성의 시선이 배제된(포르노, 성인잡지의 소재는 주로 여성의 몸이죠, 그리고 삽입 중심의 성교...) 성행위 등이 기반이 되어 형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매체에서 표현되는 성행위는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우리는 서로를 아끼는 법, 기분 좋게 하는 법, 그리고 행위 이후도 책임질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학생회는 이런 문제제기를 일상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의 의식을 바꿔나가는 거죠. ^^

### ▶ 여학생회의 목표는 여학생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여학생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차별이 없어진다면, 여학생회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은 조직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글 앞부분에 여학생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나와있죠. 만약 애초에 학생회가 여학우의 시점을 배제하지 않았다면, 여학생회는 생겨나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학생회가 여학생회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해낼 수 있다면, 그 경우에도 여학생회는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처음 여학생회가 생겨날 때의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 다. 여학생회의 활동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시각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우리 인식 내에 숨어 있는 가부장제와 성모순에 길들여진 생각들은 그리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운동은 점점 더 전문성을 요하고 있고, 그럼에도 우리 학생운동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이러한 현실에서 여학생회가 대학 내 여성운동의 요구에 가장 필요한 형태임은 부인할 수 없겠죠.

하지만 끊임없이 학우들과, 그리고 대중조직인 학생회와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 또한 그러한 관점과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배제된다는 이야기를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 3. 현재 여학생회가 변화해야 할 점

### ▶ 총여학생회만의 활동(기층이 없네요~)

우리학교 여학생운동은 총여학생회가 8~90%라는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여학생회의 단위 여학생회로는 문리대 여학생회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올해(2002년)는 문여의 과단위 여학생회 또한 한 단위도 세워지지 않아 문여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객관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단위 여학생회가 없음에 따라 학우를 직접 만나가지 못하는 대중조직은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 ▶ 학생회 일꾼과의 의사소통(간담회, 하방, 사업제기)

총여는 튼튼하지 못한 조직력을 가진 한계 때문에 일꾼과 대표자가 실무에 치이면서 단위 학생회를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단위 학생회 일꾼들은, 여학생회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으며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총여학생회가 단

위 학생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참여의 사업이 대중의 요구나 정서에 맞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기층이 없다면, 기층을 만나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학생회의 커다란 대중사업(대동한마당, 반성폭력 투쟁, 농활 등...)에 학생회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 ▶ 여성주의 정세에 대한 대응력 부족

군산 성매매 업소 여성 사망, 선생님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나서 선생님이 사실을 부인하자 자살한 여고생, 교수성폭력 가해자 형사처벌, 알몸수색 당한 시그네투스 노동자, 생리대 부가세 면세운동, 대선 흐름에 따른 호주제 폐지 운동, 양심적 병역거부 등등.....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학생회가 신속하게 입장을 발표하고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지식이나 고민이 부족하여 그것에 대해 알아보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학우들과 정세를 공유해야겠다는 인식이 부족해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던 적도 많구요.....

### ▶ 꾸준한 일상사업/여론사업의 부족

학우를 만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인 방법은 일상사업과 여론사업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맡아서 책임질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은 언제나 치명적이군요...— 하지만 현실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겠죠. 여학생 휴게실(최근 여학생휴게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에서부터 꾸준히 학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선전물을 만들고, 서명운동, 유인물, 신문, 화장실 통신 등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말고 해내야 합니다. 아, 요즘 안 하면 따되는 인터넷 선전도 꼭꼭 하구요.

특히 여성운동의 경우에는, 여성문화/예술로서 학우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좋은 공연과 작품들을 학내에서도 학우들과 함께 볼 수 있고 재현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 ▶ 자주경희 여학생운동의 정체성 확립

이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여러 가지 방향의 고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전체(?)운동"과 "여성운동"과의 관계입니다. 어렵죠. =.=;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과연 어느 만큼 여성운동을 하고 어느 만큼 전체(?)운동도 같이 해야 하나(?)하는 문제입니다.

쉬운 예로, 여학생회 일꾼을 평가할 때 그 일꾼이 얼마나 여성운동을 열심히 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통일투쟁, 노동자 투쟁에 결합하느냐로 평가되는 예가 있습니다. 여학생회 일꾼은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걸까요?

여성운동만 하고 여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진보"일 것입니다. 노동자, 빈민의 부인과 재벌 부인이 겪는 역압이 같다고는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한 짚고 넘어갈 문제는 노동자의 부인과 재벌 부인은 "여성"으로서 가부장제 내에서 겪는 공통의 역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운동은 이것을 그냥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운동이 복잡하다는 것이죠. 또한 박근혜나 장상같은 경우에, 그

들이 가지고 있는 반민주적인 성향 또는 비리 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세력화가 되는 것을 찬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반쪽짜리 진보"입니다. 하지만, 장상 총리 인준이 부결되었을 때, 그녀가 여성이었으므로 청문회나 여론에서 받았던 부정적인 시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성운동은 그것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 여성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성운동은 과연 전체운동의 부분운동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여성운동이 부분운동으로 이야기되는 한, 여학생운동은 여성운동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포다큰 것이 끊임없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여학생운동이 민족적, 민중적인 관점에서 운동할 것은 당연히 요구되지만, 통일운동, 노동자 운동이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운동하는 것은 "필수" 항목으로 요구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학교 여학생운동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그동안 명확한 활동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학생회 일꾼뿐만 아니라 함께 활동하는 학생회 일꾼들에게도 혼란을 주었습니다. 여학생회는 "반쪽짜리 진보"가 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꾼들과 여성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것을 계속해서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학생회 두리로 묶이는 아이들이 투쟁에 함께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보다, 그 아이들의 시각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선배의 모습에서 아이들도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 4.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

##### ▶ 여학생회 사업에 관심가지기

여학생회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먼저 있어야 하겠지만, 여학생회가 다가갈 때 움츠러거나 거부하지 말고 우선 관심부터 가져주세요. 관심 있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실천하게 된다고 합니다.^^\*

##### ▶ 여학생회 건설을 목표로 발판부터 다지기 (여성부, 여성학 소모임)

우리 과는 요구도 보이지 않고, 할 사람도 없으니까 여학생회는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한 번 해보시라니까요~~^^;;

여성학 소모임 또는 성평등 소공동체 등의 모임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다같이 모여 이야기하는 속에서 눈도 귀도 마음도 열리게 된답니다.

그리고 과 학생회 또는 단대 학생회가 토론해서 여학생회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다면, 다함께 도와주는 것을 전제로 여성부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여성부가 혼자 외롭게 고민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사업도 활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부는 모두의 결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경험도 지식도 부족하다면, 일상적인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생리통약을 학생회실에 비치하는 것, 여성소식을 꾸준히 전하는 것, 여성부에서 여성학 소모임을 책임지는 것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확실히,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음마를 배워야 하는 아기에게 뛰기를 재촉해서는 아기가 울고 좌절하기밖에 안하겠죠?

우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함께 해봐요!!